

초등학생부터 시작하는 흡연예방교육

글 | 대한결핵협회 홍보과

2004 흡연예방교육 대상 학교 대폭 늘려

대한결핵협회는 2001년도부터 전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01년에는 129개 학교 211,971명, 2002년에는 202개 학교 159,364명, 2003년에는 271개 학교 181,466명을 대상으로 흡연의 직·간접적인 폐해와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 및 흡연폐해 실험 등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전문가 교육을 이수한 금연 강사진(15인, 각 시·도 지부별 담당강사)은 지역내 대상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 흡연예방교육에 전력을 다해왔다. 이 교육은 교내 방송실이나 멀티미디어실에서 파워포인트로 사전 제작한 교육용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강사가 설명을 하면 각 교실의 학생들은 모니터를 통해 시청을 하고 교육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 학교 여건이나 특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강당이나 별도 공간에서 학생들

을 모아놓고 직접 강의를 하기도 한다.

대한결핵협회의 우수한 강사진은 지난 3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로 이제는 어떠한 여건과 상황에서도 바로 교육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자부한다. 2004년도에는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 대상학교를 대폭 늘렸으며, 특히 흡연 예방교육은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더욱 효과적이라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현장교육은 물론 인터넷 상담까지, 전문화된 흡연예방교육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는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은 초등학생과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흡연유혹과 욕구가 급증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층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흡연의 통로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는 장

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타당하며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대한결핵협회는 또한 본부 및 각 지부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교육과 병행해 운영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학교수를 전국 450개 초·중학교로 확대하여 총 330,000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6월 현재에도 전국의 학교를 다니면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학교 선정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졌으며, 김대현 교수(대구 계명대의대 동산의료원 가정의학과 금연클리닉)를 지도교수로 초빙해 금연강사 교육은 물론 최신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자료는 금연강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용으로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다.

교육 후에는 흡연문제와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설문지의 내용은 추후 통계자료로 만들어져 향후 교육은 물론 우리나라 흡연예방교육과 금연사업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xsmoke.or.kr)를 강화하여 온라인 교육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료등록과 정보제공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실질적 자라배경

이러한 여러 교육사업들은 국내 유일의 학교 현장방문 금연교육 기관으로서 전문적이고 특화된 교육내용으로 조기 흡연예방교육을 실시, 학생 보건향상과 평생 금연 실천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금연클리닉의 운영을 통해 교육 상담 및 치료라는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결핵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한 기관으로서 결핵퇴치 및 관리사업은 물론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과 같은 관련 사업에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서울지역내 초·중학교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 교육이 계획된 학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신청 : 홍보과 2636-5272~3)